

# 첨단과 안전, 가장 성공적인 '금메달 동계올림픽'

## 평창동계올림픽 결산

12개 경기장 시설·빙질·설질 세계최고 수준  
이동 동선 최소화 피로도 줄여 '선수 중심 대회'  
자원봉사자 헌신·최신 기술 접목 외신들 극찬  
올림픽 통해 테러 위험 없는 안전한 나라 인식

세계인의 눈과 얼음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25일 밤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국 선수단은 목표보다 많은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은 전반적인 대회 운영능력과 안전 모두 합격점을 받은 금메달 대회였다.

역대 어느 올림픽보다 매끄러운 대회 운영이 돋보였다.

12개 경기장(실상 7·빙상 5) 시설과 빙질·설질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참가 선수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경기장 중 다수가 새로 만들어졌음에도 테스트 이벤트의 경험, 전문가들의 도움에 힘입어 세계 최고수준의 경기구역을 조성했다.

정신 알파인 스키장의 경우 FIS 감독관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기장"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강릉 아이스 아레나는 완벽한 빙질을 자랑했다.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등 곳곳에 배치돼 원활한 대회 운영과 함께 한국을 일리는 데 힘썼다.

크리스토프 두비 IOC 수석국장은 "운영상 큰 문제가 없는 건 대회운영 인력 덕분이다. 선수들의 위대한 경쟁과 경기력이 펼쳐지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가 돋보인다"고 칭찬했다. 외국 선수와 기자들도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함 미소를 본 후 그들을 숨은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또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대회로 기억될 것이다. 대회 운영과 지원을 위한 수송관리·접근통제·운영인력 전자식권, 숙박 등 31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대회의 준비, 운영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현장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위기 발생 시 비상조치 등을 위해 종합운영센터(MOC)가 운영됐다. 실시간 정보공유와 완벽한 지휘통제 기능 수행을 위해 ICT 강국의 기술을 접목시킨 첨단 시스템을 운영했다.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를 비롯해 편리한 사물인터넷(IoT), 감동의 초고화질(UHD), 똑똑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로봇 서비스 등 첨단 과학기술의 향연이 펼쳐졌다.

ICT 올림픽을 관객들이 집약적으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평창 올림픽플라자 문화 ICT관 2층에 평창 ICT 체험관을 운영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미국CBS는 "대한민국에서 열린 올림픽은 현재까지 개최된 올림픽 중에 최신 기술이 가장 많이 집약된 올림픽"이라고 호평했다.

올림픽을 통해 테러 위험이 없는 안전한 나라는 인식도 깊어졌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에 여러 나라들이 과연 한국이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까 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대회 불참을 고민하는 국가도 있었다. 휴전 국가, 북한의 핵 도발 등 급변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우에 불과했다. 북한의



무장 군정은 한국을 찾은 손님들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외곽에서 민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대신 첨단 장비를 갖춘 24시간 감시체계의 보안관제센터 등을 통해 불순분자의 대회시설 침입, 각종 테러, 안전사고 등 대회를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센터에는 지능형 CCTV, 전술비행선 및 무인 항공기, 위치관제시스템 등 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첨단 장비를 활용한 24시간 감시체계를 통한 불순물 없는 보안검색, 대테러, 안전활동 등도 만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CBS는 "대한민국에서 열린 올림픽은 현재까지 개최된 올림픽 중에 최신 기술이 가장 많이 집약된 올림픽"이라고 호평했다.

올림픽을 통해 테러 위험이 없는 안전한 나라는 인식도 깊어졌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에 여러 나라들이 과연 한국이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까 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대회 불참을 고민하는 국가도 있었다. 휴전 국가, 북한의 핵 도발 등 급변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우에 불과했다. 북한의

미국CBS는 "대한민국에서 열린 올림픽은 현재까지 개최된 올림픽 중에 최신 기술이 가장 많이 집약된 올림픽"이라고 호평했다.

올림픽을 통해 테러 위험이 없는 안전한 나라는 인식도 깊어졌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에 여러 나라들이 과연 한국이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까 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대회 불참을 고민하는 국가도 있었다. 휴전 국가, 북한의 핵 도발 등 급변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우에 불과했다. 북한의

## 땀과 열정 숨 쉬 올림픽 불쌍사나운 장면도... '옥에 티·티·티'

'눈과 얼음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17일 간의 열정을 뒤로 하고 25일 마무리됐다.

하지만 어디에선 옥에 티는 존재한다. 땀과 열정이 숨 쉬 올림픽 무대 한가운데서 불쌍사나운 장면도 여러 차례 빚어졌다.

국내 팬들에게는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에서 불거진 '왕따 스캔들'을 빼놓을 수 없다. 노선영(29·폴링팀), 김보름(26·강원도청), 박지우(20·한국체대)로 이뤄진 대표팀은 1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3분03초76을 기록, 8개 팀 가운데 7위에 머물렀다. 팀워크가 생명인 팀추월에서 선수들의 호흡을 찾아볼 수 없었다. 3명이 나란히 달리는 팀추월 경기는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을 두고 경쟁한다.

그러나 마지막 바퀴를 앞두고 노선영을 제외한 김보름, 박지우만

으로 치고 나갔다.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은 큰 격차로 뒤늦게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후 김보름과 박지우가 인터뷰에서 노선영을 탓하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 저조한 경기력과 실종된 팀워크로 성난 팬들에게 기쁨을 부른 꼴이 됐다. 노선영이 홀로 울고 있는 장면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일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이 해명 기자회견을 했지만, 노선영이 회견내용을 반박하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대한빙상연맹의 행정 착오로 올림픽 참가가 불투명했던 노선영이 앞서 김보름과 관련해 별도 훈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둘 사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추측이 많다.

외신들도 여자 팀추월 대표팀 논란을 주요 이슈로 다뤄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었다. USA투데이 신문은 "파들립 스캔들이 한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을 강타했다"며 "김보름, 박지우의 국가대표 자

격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건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 방송은 "36만명 이상이 한국 스케이터들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원을 했다. 둘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동료들 못 살게 꼴이었다"며 김보름의 후원사 '네파'가 이달 말로 끝나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내용을 함께 보도했다.

쇼트트랙 판정 시비와 팬들의 선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테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자 쇼트트랙의 김 부랭(24·캐나다)은 500m 결승에서 최민정(20·성남시청)의 실격으로 동메달을 딴 뒤 악성 댓글 테러에 시달려야 했다. 최민정이 오심으로 피해를 봤고 이 화살은 부랭에게로 향한 것이다.

우리 선수도 당했다. 남자 쇼트트랙의 사이리(26·화성시청)가 남자 1000m 예선을 통과하자 SNS에 "경기가 조작됐다"는 댓글이 난무했다.

한렌위(22·중국)의 실격으로 사이리가 2위에 오르자 화가 난 중국 네티즌들이 벌인 일이다.

올림픽의 '단골손님' 격인 도핑 위반자는 4명 나왔다. 일본 쇼트랙의 사이토 케이(22), 러시아 컬링의 알렉산더 크루셀니츠키(26), 슬로베니아 아이스하키의 지가 제글리치(30)가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 중 동메달을 거머쥔 크루셀니츠키는 메달을 반납했다. 23일에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대표단이 "여자 봅슬레이 경기에 출전한 네즈즈다 세르게예바가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친한파'로 알려진 네덜란드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는 뜬금없는 '개 발인'으로 구설에 올랐다. 21일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안 블록휴이센(29)이 기자회견장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느닷없이 "이 나라는 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논란'이 되었던 대표팀(박지우, 노선영, 김보름)이 21일 오후 강릉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에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를 더 잘 대접하길 바란다(Please treat dogs better in this country)"며 기자회견장에서 퇴장했다. 일부 한국인들의 식견 행태를 비꼬는 누앙스 때문에 논란이 불거졌고 하루 만에 네덜란드 선수단장과 간판선수 스벤 크라머(32)가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대회 초반 노로 바이러스 확진이 대거 발생해 조직위원회를 긴장하게 한 장면도 추후국으로서도 점평

했다.

이밖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메달권이 아니다"는 발언으로 한국 선수들에게 상처를 입힌 이낙연(66) 국무총리, 스키텐 윤성빈(24)의 금메달 현장에서 무단으로 썰매 픽업 존에 들어가고 이후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부른 박영선(58) 의원, 자원봉사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비난을 들은 이기홍(63) 대한체육회장 등도 '옥에 티'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가짜뉴스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